

류, 123km 체인지업 ... 빠름을 이기는 느낌의 미학



13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트루이스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기 1회에서 토론토의 류현진(34)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이스 류현진, 애틀랜타전 선발 7이닝 6K 1실점 호투 토론토 4-1 승리 이끌고 시즌 3승 ... 평균자책점 2.95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올 시즌 개인 최다 이닝을 소화하며 시즌 3승(2패)을 거뒀다. 류현진은 13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트루이스파크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인터리그 방문 경기에 선발 출전해 7이닝 동안 5피안타(1홈런) 1볼넷 6탈삼진 1실점(1자책점)으로 호투했다. 올 시즌 평균자책점은 3.15에서 2.95로 끌어내

렸다. 그는 2-1로 앞선 8회초 공격에서 교체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토론토는 4-1로 승리했고, 류현진은 승리투수가 됐다. 류현진이 7이닝 이상을 책임진 건 지난달 8일 텍사스 레인저스(7이닝 2실점)전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부상에서 복귀한 7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부터 연속 경기 승리를 기록하며 몸 상태에 관한 주변의 우려를 완전히 잠재웠다. 류현진은 이날 2회와 7회를 제외한 때 이닝에서

출루를 허용했지만,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보였다. 그는 1회 2사에서 마르셀 오수나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한 뒤 오지 엘비스를 내야 땅볼로 처리하며 위기에서 벗어났다. 2회엔 삼진 2개를 곁들이며 삼자 범퇴로 막았다. 우타자 댄스비 스완슨은 몸쪽 낮은 딱 찬 직구를 던져 루킹 삼진 처리했고, 윌리엄 콘트레라스는 낮은 체인지업으로 헛스윙 삼진을 끌어냈다. 류현진은 3회 1사에서 상대 선발 투수 맥스 프라이드에게 우전 안타를 내줬는데, 이후 로널드 아쿠냐 주니어와 프레디 프리먼을 공 4개로 잡아내며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갔다. 류현진은 0-0으로 맞선 5회에 첫 실점했다. 선두타자 콘트레라스에게 좌월 솔로 홈런을 내줬

다. 볼 카운트 1볼-1스트라이크에서 시속 126km 체인지업을 던졌는데, 가운데로 살짝 몰렸다. 콘트레라스는 어퍼 스윙으로 당겨쳐 좌측 담장을 넘겼다. 류현진은 흔들리지 않고 후속 타자 두 명을 모두 맞춰 잡았다. 이후 아쿠냐 주니어에게 이날 경기 첫 볼넷을 내줬지만, 프리먼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침묵하던 토론토 타선은 6회초 동점을 만들며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2사 2루 기회에서 마커스 시미언이 좌익선상 적시 2루타를 터뜨렸다. 류현진은 1-1로 맞선 6회말 2사에서 오스틴 라일리에게 좌익수 왼쪽에 떨어지는 2루타를 허용했는데, 후속 타자 스완슨을 우익수 뜬공으로 잡아내

며 다시 위기를 벗어났다. 토론토는 7회초 선두 타자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우월 역전 솔로 홈런으로 2-1로 경기를 뒤집었다. 류현진은 7회말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그는 세 타자를 모두 뜬 공으로 처리하며 임무를 완수했다. 이날 류현진의 직구 평균 구속은 시속 89.2마일(약 143.5km)로, 시즌 평균 구속 시속 89.5마일(약 144km)보다 느렸다. 또한, 5회 프레디 프리먼을 3구 삼진으로 처리할 때처럼 시속 123km의 체인지업에 이어 시속 145km 직구를 던져 ‘더 빠르게 보이는 효과’도 만들었다. 그는 총 94개의 공을 던졌다. 직구(30개), 체인지업(25개), 킷패스트볼(22개), 커브(17개)를 골고루 던졌다. /연합뉴스

이의리, 험난한 승리투수의 길 ... “꾸준함이 필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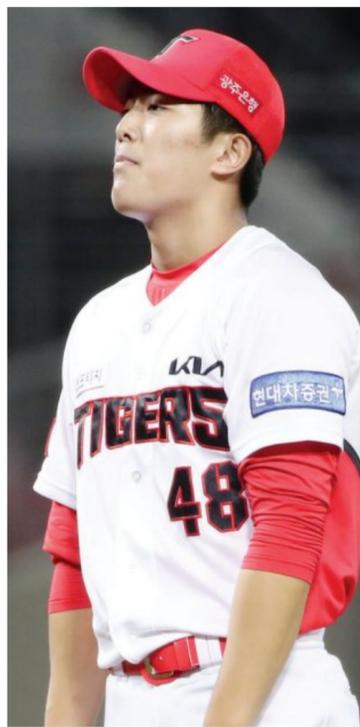
야수들 실수 연발에 불운 겹쳐
“어떤 결과든 배울수 있는 경기”



강하게 크는 KIA 타이거즈의 신인 이의리에게 ‘꾸준함’이 새로운 과제가 됐다. 지난 12일 경기가 끝난 뒤 결승타 주인공 김선빈은 “이의리에게 미안하다”며 속스럽게 웃었다. 이날 KIA는 5-3 역전극을 연출하면서 젤리나 이어 수아레즈를 상대로 예상치 못한 승리를 챙겼다. 3-3로 맞선 6회 1사 1-2루에서 김선빈이 LG의 두 번째 투수 이정용의 조구를 공략해 우중간을 갈랐다. 김선빈의 2루타로 5-3으로 리드를 잡은 KIA는 남은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승리를 가져왔다. 결승타 주인공 김선빈은 경기가 끝난 뒤 “모든 선수가 잘해주고 있다. 함께 잘해서 이겼다”며 웃었지만 이날 선발로 나왔던 이의리의 이름이 나오자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김선빈은 “의리한테 미안하다. 의리 등판할 야수들이 실수하는 경향이 많다. 야수들이 잘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잘 안 되는 것 같다. 미안하다” 밝혔다. 이의리는 이날 3회까지 단 하나의 볼넷만 허용하는 좋은 피칭을 선보였다. 하지만 험난한 4회가 이의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지환의 내야안타로 시작된 4회. 라모스를 2루 땅볼로 처리한 이의리가 2루 견제로 오지환을 잡아내면서 투 아웃을 만들었다. 하지만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채은성의 우전안타 때 최원준의 포구 실책이 나오면서 1사 2루가 됐고, 김민성의 우전안타가 이어지면서 이의리가 LG에 선취점을 내줬다. 그리고 볼넷으로 주자를 내보낸 이의리가 문보경에게 내야안타를 맞았다. 이때 공을 잡은 유격수 박찬호의 악송구가 겹치면서 두 번째 주자가 홈에 들어왔다. 이어 대타 이찬웅의 짧은 중전안타가 나오면서 2사 만루가 됐고, 이의리가 정주현에게 밀어내기 볼넷을 내주면서 세 번째 점수를 허용했다. 앞선 사직 등판에서도 볼넷과 야수진의 실책이 어우러진 실점 장면이 있었던 만큼 이의리는 물론 선발들에게도 아쉬움이 남는 4회가 됐다. 실수 연발로 어린 후배의 어깨를 무겁게 했던 선발

들은 4회말 공격에서 동점을 만들어주면서 이의리의 패전은 지워졌지만, 승리까지는 쟁겨주지 못했다. 5회 2사에서 투구수가 95구에 이르자 윌리엄스 감독은 이의리의 교체를 결정했다. 두 경기 연속 험난한 이닝을 경험한 이의리에게 윌리엄스 감독은 ‘꾸준함’이라는 교훈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13일 “어느 결과가 나오든 배울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 꾸준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어제는 시즌 처음으로 구위가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5회를 마치고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스피드가 떨어지고 제구도 흔들려서 교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의리는 4회 35구의 투구수를 기록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5회를 채우지 못했다. 앞선 등판과는 마무리였지만 로테이션 조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등판 조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주말에 짧은 원정이 있어서 오늘 등판하는 브룩스와 함께 광주에 남게 할 계획이다”며 “이동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고 광주에서 컨디션 운동을 하게 할 예정이다. 주말 비 소식도 있어서 모든 것을 고려해 광주에 남게 했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의리

광주FC, 인천 원정길 내일 K리그1 16라운드

광주FC가 필승을 외치며 인천 원정길에 나선다. 광주는 오는 15일 오후 7시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를 만나 K리그1 2021 1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위기에 몰린 광주다. 광주는 앞선 라운드 수원 FC와의 원정경기에서 눈앞에서 승리를 놓쳤다. 수비수 알렉스가 헤이스의 프리킥을 받아 멋진 골을 만들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지만, 후반 40분이 넘어 두 골을 연달아 내줬다. 무리לו와 라스의 공세에 승리를 챙기지 못한 광주는 그대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앞서 강세를 보여왔던 상대였고, 역전패라 패배의 충격은 더 컸다. 그리고 광주는 어느새 3연패 상황에 이르렀다. 무조건 결과를 내야 하는 절박한 경기. 패배는 낫지만 앞선 수원 FC와의 경기에서 희망도 찾았다.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공격의 시발점이 되어주고 있는 수비수 알렉스가 지난 경기에서는 직접 득점을 만들어냈다. 알렉스의 골을 도운 헤이스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3도움을 올리는 등 날카로운 킥을 보여주고 있다. 키는 역시 펠리페다. 상대의 집중 견제에 고전하고 있는 펠리페가 시원한 골 사냥을 펼치면서 위기의 팀에 활기를 불어 넣어줘야 한다.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의 만점 활약 속 임원상의 스피드까지 더해지면서 펠리페에 집중된 견제 분산효과가 기대된다. 이번엔 만나는 인천과는 5승 11무 5패로 팽팽한 접전을 벌여왔다. 최근 흐름은 인천이 앞선다. 김도혁, 네게바, 아길라르, 무고사 등 리그 내 수준급 선수들이 버티고 있는 인천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기회 잡은 황대인 ‘반전의 5월’ 만들까

올 시즌 첫 엔트리 등록

황대인이 기회를 얻었다. KIA 타이거즈는 13일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앞서 엔트리에 변화를 줬다. 내야수 최정용을 말소 한 KIA는 황대인의 이름을 엔트리에 올렸다. 올 시즌 황대인의 첫 등록이다. 타커의 외야 이동과 부상 때문 풀업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타커가 외야에서 역할이 중요해졌고, 오른손 타자도 필요했다”며 “벤치 밸런스 차원에서든 왼손 타자는 있는데 오른손 타자가 필요했다. 1루에서도 류지혁의 몸상태를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풀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 KIA는 타커를 외야에서 1루수로 돌리는 강수를 뒀다. 지난 시즌 성장세를 보인 최원준을 우익수로 해 중견수까지 다양한 선수를 기용하면서 외야의 옵션을 늘리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좌익수 나지환의 영구퇴부상과 외야 자원들의 부진이 겹치면서 타커가 지난 5월 사직 롯데전에서 시즌 처음 외야로 이동했다. 타커는 외야로 이동한 뒤 세 경기 만에 홈런포를 쏘아올리는 등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 결국 타커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됐고, 부상으로 인한 내야의 변화도 있었다. 3루를 맡았던 류지혁이 허벅지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된 사이 김태진이 뜨거운 타격감을 보이면서 3루에서 고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류지혁의 몸상태라는 변수 속 우타 거포 자원의 필요까지 더해지면서 황대인이 다시 기회를 맞았다. 팀의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맞은 황대인이 반전의 5월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